

예 배 WORSHIP

November 24,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직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장미 꽃 감사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구은강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찬송가 589 장 / 넓은 들에 익은 곡식 1, 4 절 (통일찬송 308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김훈태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26:3-13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오늘의 찬양

나를 지으신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 남는건

감사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

삶의 출발부터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사에 영혼을 울리는 멜로디가 더해져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다. 사람에게에는 반드시 마지막 호흡의 때가 오지만, 아무도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역하며, 함께 풍성한 열매 맺기를 꿈꾼다.

한 주간의 기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 받으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채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처럼 마냥 받기만 바라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사랑의 선물은 온전히 감사로 행함으로 되느니라" (골로새서 3:14)

김성배 목사

신자의 감사는 달라야 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약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약4:13-17)

1. 일상에 감사하라.

이번 추수감사절은 받은 복만이 아니라 평소에 지나쳤던 사소한 일상에 더 감사하자. 그것이 신자가 행할 참 감사의 출발이다.

2. 현재의 고난에 감사하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거룩한 뜻을 당장에 모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고난 중에 어려운 여건으로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고난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미래를 감사하라.

야고보 사도는 생명은 안개와 같다고 했다. 내일 일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그 성공 여부도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한 개인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평강으로 인도해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솔직히 일반인도 할 줄 안다. 신자가 행할 참 감사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감사는 저녁에 잘 때에 내일 새날을 줄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고, 그래서 내일도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해야 한다. 자기가 계획한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도 그분이 반드시 이뤄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한다.

미래에 대해 감사하는 것, 찬양으로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감사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내년을 감사, 아니 30-40년 뒤의 미래를 꿈꾸며 감사하라. 그 소망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손에 붙들려 있음에 감사하라.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것들보다 훨씬 더 좋게 하나님이 결실 맺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소망을 갖게 한 것 자체가 그분의 간섭인데 그분이 안 이뤄주실 리가 있는가?

과거에 받은 복을 회상하는 것은 잠시 위로받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고난과 자꾸 비교되어 오히려 불평불만만 생긴다. 현재도 살 수 없으니 미래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이다. 그 인생을 아무런 믿음과 계획과 소망도 없이 불안 염려에 휩싸여 끌려가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신자가 되었다는 뜻은 미래를 설렘과 기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소한 미래에 대한 평강이 없다면 믿음마저 의심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20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지 않았는가? 신자는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대체 무엇을 염려하는가? 예수 안에서 바뀐 내 신분과 정체성을 제대로 안 다면 일상성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나아가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 박진호 목사(렘피스 커피우즈 한인교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의 식탁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가족,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1.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녀들이 감사찬양을 인도하며 성찬예식을 가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2. 금주는 성교주강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사,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다음 주일(12/1)은 Christ UMC 의 "Hanging of Green" 주일입니다. 학생들을 초청합니다.
4.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5.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과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6.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연말 연시 더욱 모이기에 힘써주세요. 새벽기도회 (화-금 6a.m. / 토 7a.m.)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 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8. 2019년 사역 정리 및 2020년 사역 준비와 예결산을 위해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결산위원회 모임을 가집니다.

11/12월 사역 ▶ 11.24 추수감사 주일 & 성찬예식 / 12.12 Oikos 사역 / 12.22 성탄감사 주일 / 12.24 성탄축하의 밤 / 12.31 송구영신예배 & 성찬예식
 ▶ 예결산 사역 / 사역 리뷰와 재정비

♥성령의 은사♥ 김지수(11/2) 정연미(11/4) 홍정임(11/4) 박진성(11/5) 정하민(11/23)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주일예배기도	11/24	12/1	12/8	12/15
	최내권집사	고순제전도사	최선운집사	구 민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1/29	12/6	12/13	12/20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11/24	12/1	12/8	12/15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11월	12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복음의 능력 / 로마서 1:16-17

주 예수님의 복음은 부끄러워할 요소들을 포함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저주와 패배를 상징하는 고통스런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십자가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헬라인의 교만한 철학을 능가하는 능력,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없는 - 진짜 능력 - 복음의 능력 - 즉,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성령 하나님이 전도자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마주한다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은 뜻은?

2019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다. 모두에게 익숙한 이 명령문을 수식하는 부사에 주의를 기울이면,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무가 된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을 가는 곳 마다 겪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유대인의 회당 및 아손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혀 밤에 갑자기 도시를 떠나게 되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는 믿음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다. 충분히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기 전에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다.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어려움 가운데 복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여전히 많은 환란을 겪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모범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면, 실패와 고난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숙하게 동행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한다.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순간들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기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우리의 감사 생활을 재점검해야 한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믿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잠 못 들 때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격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성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치유, 회복, 나눔

November 24,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www.churchofservant.com

감사의 달 추수감사주일 선교주간

- 꿈이 있는 교회
- 섬김이 있는 교회
-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크리스천은
영리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리를 이기는 사랑이다